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3.1.30

나스닥, 테슬라 등 전기차 업종 급등 영향으로 상승 지속

서상영 sangyoung.seo@miraeeasset.com

미 증시 동향: 테슬라 등 전기차 업종 중심으로 나스닥 강세

•미 증시는 PCE 물가가 소비자 물가지수와 같이 특정 품목 중심으로 하락했을 뿐 서비스 물가는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이 부각되자 보험권 등락을 보이며 출발. 그러나 보험권 등락을 보이던 테슬라(+11.00%)가 머스크 CEO와 백악관 관리가 만나 전기차 산업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소식에 급등하자 여타 전기차 관련 업종이 강세를 보이며 상승 주도. 다만, 장 마감 직전 일부 기업들을 제외한 대부분 종목이 경기 위축 우려 속 매물 출회되며 다우 등은 상승 반납하며 마감(다우 +0.08%, 나스닥 +0.95%, S&P500 +0.25%, 러셀2000 +0.44%)

특징 종목: 테슬라, 루시드 급등

•테슬라(+11.00%)는 장 초반 보험권 등락을 보이다 백악관 관리와 머스크가 만남을 가져 전기차 산업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본격적인 상승을 보이며 마감. 루시드(+43.00%)는 사우디 국부 펀드가 비공개로 전환하기 위한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장 중 100% 가까이 상승하는 등 변동성을 보인 후 43% 급등 마감. 이런 전기차 산업에 긍정적인 소식이 유입되자 리비안(+8.30%), 니오(+4.44%), 로드스타운(+7.50%), 쿼텀 스케이프(+7.13%), 피스커(+14.96%)등 전기차, 2차전지, 충전 업체 등 관련 산업군 동반 상승

한국 증시 전망: 차익실현 매물 출회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는 0.49% 상승, MSCI 신흥 지수 ETF는 0.47%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28.95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47% 상승. KOSPI는 0.3% 내외 상승 출발 예상.
 •미 증시가 테슬라와 루시드 급등에 따른 전기차 관련 업종의 강세가 뚜렷한 가운데 실적 발표를 앞둔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며 상승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그렇지만, 여전히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등 경기 위축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부담. 특히 이를 반영하며 대부분의 종목군이 약세를 보여 다우지수는 소폭 상승에 그쳤고, 장 마감 앞두고 나스닥도 차익 매물 출회되며 상승분을 일부 반납한 점은 부담.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3% 내외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나 상승을 확대하기 보다는 제한적인 등락에 그칠 것으로 전망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 | | | | | |
|---------|-----------|-------|----------|-----------|-------|
| KOSPI | 2,484.02 | +0.62 | 상해종합 | 3,264.81 | 휴장 |
| KOSDAQ | 741.25 | +0.31 | 홍콩항생 | 22,688.90 | +0.54 |
| DOW | 33,978.08 | +0.08 | 베트남 | 1,117.10 | 휴장 |
| NASDAQ | 11,621.71 | +0.95 | 유로스톡스 50 | 4,178.01 | +0.10 |
| S&P 500 | 4,070.56 | +0.25 | 영국 | 7,765.15 | +0.05 |
| 캐나다 | 20,714.48 | +0.07 | 독일 | 15,150.03 | +0.11 |
| 일본 | 27,382.56 | +0.07 | 프랑스 | 7,097.21 | +0.02 |
| KOSPI | 2,484.02 | +0.62 | 상해종합 | 3,264.81 | +0.76 |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① 개인소비 감소와 물가 하락 ② 테슬라 급등

미국 12월 개인 소득은 495억 달러(전월 대비 +0.2%) 증가한 반면 소비 지출은 416억 달러(전월 대비 -0.2%) 감소. 소비지출 감소는 11월에 발표된 0.1% 감소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 높은 이자율과 인플레이션 상승이 소비 행태에 영향을 준 것으로 주로 가솔린, 자동차, 주택, 항공, 의료 등에서 지출 감소가 발생. 저축률은 2.9%에서 3.4%로 증가. 대체로 미국 국민들은 경기 둔화에 대비하며 소비를 줄이고 있으며 저축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 이러한 소비 둔화는 최근 미국 소매판매 위축을 불러와 경기 둔화 가능성을 더욱 자극

한편, 12월 PCE 물가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0.1% 상승과 같았으나 예상치인 보험보다는 상승폭이 컸음. 전년 대비로는 5.5%에서 5.0%로 하락했으나 예상과 부합. 근원 PCE 물가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0.2% 상승보다 증가한 0.3% 상승을, 전년 대비로는 4.7%에서 4.4%로 하락했으나 예상과 부합.

문제는 서비스 물가는 11월 발표와 같은 전년 대비 5.2% 상승했으나, 가솔린, 전력, 가스 서비스 부문이 전년 대비 13.7%에서 6.9%로 급격하게 하락한 점이 물가 하락 압력을 키운 것으로 추정. 결국 최근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와 같이 서비스 부문은 여전히 견조하고 가솔린 등 일부 품목 중심으로만 급격하게 하락한 점이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음. 이 결과 장 초반 달러 강세, 금리 상승을 보이며 주식시장 초반에 영향

예상을 상회한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진 테슬라(+11.000%)가 이날도 급등. 이러한 상승 요인을 살펴보면 트위터 인수 후 공격적인 공매도가 실적 발표 후 숏 커버링이 발생하는 등 수급적인 요인이 영향을 준 가운데 머스크 CEO가 연초 가격 할인에 따른 수요 급증을 언급하는 등 성장에 대한 기대 심리가 투자 심리에 영향. 더 나아가 1~3분기 2억 달러 규모에 그쳤던 FSD 이연 매출이 3억 2,400만 달러를 반영한 가운데 향후 유입될 수 있는 금액이 10 억달러를 넘어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영향

여기에 머스크 CEO가 백악관 청정 에너지 혁신 수석 고문과 인프라 지출을 감독하는 고위 관리를 만나 전기 자동차 생산을 발전시키고 미국 차량 네트워크의 전기화 속도를 높이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논의했다는 소식도 영향. 백악관은 이날 두명의 관리가 머스크를 만나 전기화에 대한 공동 목표와 인플레이션 감소법이 어떻게 전기 자동차 생산과 충전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전기화의 더 광범위한 원인에 대해 논의했다"고 발표. 실제 보험권 등락을 보이던 테슬라는 이 소식이 유입된 이후 본격적인 상승을 했음. 이러한 테슬라의 급등은 여타 대형 기술주의 강세를 부추겨 나스닥 상승을 견인

한편, 이날 전체 옵션 거래 중 13%는 테슬라였음. 가장 활발한 거래는 170~180달러를 기록할 것이라는 콜옵션이 많았음. 다만, 가장 많이 새로 매수한 계약은 160달러 이하로 하락하는 풋 옵션



테슬라, 루시드 급등

테슬라(+11.00%)는 장 초반 보험권 등락을 보이다 백악관 관리와 머스크가 만남을 가져 전기차 산업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본격적인 상승을 보이며 마감. 루시드(+43.00%)는 사우디 국부 펀드가 비공개로 전환하기 위한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장 중 100% 가까이 상승하는 등 변동성을 보인 후 43% 급등 마감. 이런 전기차 산업에 긍정적인 소식이 유입되자 리비안(+8.30%), 니오(+4.44%), 로드스타운(+7.50%), 쿼트 스케이프(+7.13%), 피스커(+14.96%)등 전기차, 2차전지, 충전 업체 등 관련 산업군 동반 상승

아메리칸 익스프레스(+10.54%)는 양호한 실적과 배당금 15% 증액 발표로 급등. 비자(+3.00%)도 예상을 상회한 실적 발표로 상승. 아마존(+3.04%)은 아마존 NFT가 곧 출시될 것이라는 소식과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긍정적인 전망 가능성이 부각되며 상승. 애플(+1.37%)도 상승. 메타(+3.01%)는 올해 AI, VR 등의 전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상승. 엔비디아(+2.84%)는 인텔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쟁에서의 승리 가능성이 부각되며 상승.

인텔(-6.41%)은 예상을 하회한 실적과 이번 분기 손실을 전망하자 급락. 하스브로(-8.11%) 분기 실적에 대한 경고와 15% 일자리 감축을 발표하자 하락. 반도체 장비 업종인 KLA(-6.85%)은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 발표로 하락. AMAT(-2.67%), 램리서치(-2.99%)도 동반 하락.

주요 ETF

| ETF 종류 | 등락률(%) | ETF 종류 | 등락률(%) |
|---------------------|--------|---------------------|--------|
| 원유시추업체 ETF (XOP) | -1.36 | 대형 가치주 ETF (IVE) | +0.21 |
| 클린테크 ETF (CTEC) | +1.16 | 중형 가치주 ETF (IWS) | +0.36 |
| 소매업체 ETF (XLY) | +2.27 | 소형 가치주 ETF (IWN) | +0.61 |
| 온라인소매 ETF (EBIZ) | +1.79 | 대형 성장주 ETF (VUG) | +0.99 |
| 미국 인프라 ETF (PAVE) | +0.14 | 중형 성장주 ETF (IWP) | +0.38 |
| 핀테크 ETF (FINX) | +2.11 | 소형 성장주 ETF (IWO) | +0.48 |
|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 +1.57 |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 -0.13 |
| 클라우드 ETF (CLOU) | +0.95 |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 -0.09 |
| 사이버보안 ETF (BUG) | +0.68 |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 -0.20 |
|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 +1.27 | 미국 국채 ETF (IEF) | -0.15 |
|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 +1.27 | 하이일드 ETF (JNK) | -0.26 |
| 바이오섹터 ETF (IBB) | +0.05 | 신흥국 채권 ETF (EMBD) | -0.58 |
| 로봇&AI ETF (BOTZ) | +1.24 | 물가연동채 ETF (TIP) | -0.22 |
| 반도체 ETF (SMH) | -0.66 |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 -0.29 |

US Sector Index

| S&P 500 | Close | D-1(%) | D-5(%) | D-1개월(%) |
|---------|----------|--------|--------|----------|
| 경기소비재 | 1,150.81 | +2.27 | +6.38 | +16.06 |
| 부동산 | 253.70 | +0.94 | +2.82 | +8.66 |
| 커뮤니케이션 | 182.90 | +0.88 | +3.28 | +16.04 |
| IT | 2,385.90 | +0.44 | +4.07 | +10.75 |
| 산업재 | 855.73 | +0.35 | +2.13 | +2.41 |
| 금융 | 603.02 | +0.05 | +2.53 | +6.60 |
| 유틸리티 | 350.27 | -0.03 | -0.49 | -3.51 |
| 필수소비재 | 762.14 | -0.25 | +0.43 | -3.47 |
| 소재 | 525.46 | -0.34 | +0.71 | +6.04 |
| 헬스케어 | 1,547.92 | -0.69 | -0.89 | -2.30 |
| 에너지 | 700.58 | -1.99 | +0.76 | +3.64 |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차익실현 매물 출회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는 0.49% 상승, MSCI 신흥 지수 ETF는 0.47%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28.95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47% 상승. KOSPI는 0.3% 내외 상승 출발 예상.

지난 금요일 한국 증시는 장 초반 인텔의 시간 외 급락 여파와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며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며 하락하기도 했으나, 미국의 GDP 성장률 발표에 힘입어 미국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자 상승. 특히 외국인이 삼성전자 중심으로 적극적인 순매수를 기록하는 등 수급적인 요인도 우호적인 영향. 다만, 장 후반 차익 매물 출회되며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며 KOSPI는 0.62%, KOSDAQ은 0.31% 상승 마감.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테슬라와 루시드 급등에 따른 전기차 관련 업종의 강세가 뚜렷한 가운데 실적 발표를 앞둔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며 상승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특히 머스크와 백악관 고위 관리가 전기차 산업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소식은 관련 종목군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우호적.

더불어 비록 서비스 물가는 여전히 견조하지만, 전체적인 헤드리인 물가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다는 점, 소비심리지수에서의 1년 인플레이션율도 잠정치였던 4.0%에서 3.9%로 하향 조정되는 등 물가 안정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우호적. 그렇지만, 여전히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등 경기 위축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부담. 특히 이를 반영하며 대부분의 종목군이 약세를 보여 다우지수는 소폭 상승에 그쳤고, 장 마감 앞두고 나스닥도 차익 매물 출회되며 상승분을 일부 반납한 점은 부담.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3% 내외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나 상승을 확대하기 보다는 제한적인 등락에 그칠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물가 하락 지속

미국 12월 개인 소득은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0.3% 증가에서 0.2% 증가로 둔화됐으나 예상과 부합. 개인 소비는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0.1% 감소보다 둔화된 0.2% 감소해 예상 하회

미국 12월 PCE 물가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0.1% 상승과 같았으나 예상치인 보합보다는 상승폭이 컸음. 전년 대비로는 5.5%에서 5.0%로 하락했으나 예상과 부합. 근원 PCE 물가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0.2% 상승보다 증가한 0.3% 상승을, 전년 대비로는 4.7%에서 4.4%로 하락했으나 예상과 부합

미국 1월 소비 심리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59.70이나 잠정치인 64.6을 상회한 64.9로 상향 조정. 1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지난달 발표된 4.4%나 잠정치인 4.0%를 하회한 3.9%로 발표

미국 12월 잠정 주택판매 건수는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2.6% 증가를 소폭 하회한 2.5% 증가로 발표돼 예상치인 1.0% 감소보다 개선



국제유가, 소비지출 감소 여파로 하락

국제유가는 미국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자 하락. 특히 소비지출이 가솔린 중심으로 감소한 점도 전반적인 투자 심리에 부담. 더 나아가 OPEC+ 회담에서 생산 쿼터 유지를 권고할 것이라는 소식도 매물 출회 요인.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온화한 날씨가 끝나고 조만간 강추위가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상승.

달러화는 엔화와 더불어 미국 소비지출 감소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자 상승. 다만, FOMC와 ECB, BOE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보험권 등락을 보인 점이 특징. 역외 위안화는 달러 대비 0.3% 약세, 브라질 헤알은 달러 대비 0.7% 약세를 보인 가운데 상품 환율 등도 보험권 등락을 보이는 등 관망세가 짙은 양상

국채금리는 PCE 물가가 전년 대비로는 5.5%에서 5.0%로 하락하고 근원 PCE 물가지수도 전년 대비로는 4.7%에서 4.4%로 하락했으나, 상승. 특히 전월 대비 수치는 예상을 상회한 가운데 이번 하락은 지난번 소비자물가지수와 같이 일부 품목 중심으로만 하락을 했을 뿐 여전히 서비스 물가는 견고하다는 점이 부각된 점이 상승 요인. 다만, 소비심리지수 세부 항목 중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잠정치인 4.0%에서 하향 조정된 3.9%로 수정 발표를 하자 상승분을 일부 반납.

금은 달러 강세와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 출회되며 이를 연속 하락. 구리 및 비철금속은 미국 소비지출 둔화 등으로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자 하락. 곡물은 대두는 아르헨티나에 내린 비로 생산 증가 가능성이 부각되자 하락. 옥수수는 수요 증가 기대로 강세. 밀은 미국 중부지역 작황이 부진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에 따른 매수세가 유입되기는 했으나, 대두 하락 등으로 소폭 하락 마감

| 주요 상품 | 종가 | D-1(%) | D-5(%) | 주요 통화 | 종가 | D-1(%) | D-5(%) |
|---------|----------|---------|---------|---------------|----------|---------|---------|
| WTI | 79.68 | -1.94 | -2.69 | Dollar Index | 101.930 | +0.09 | -0.08 |
| 브렌트유 | 86.66 | -1.25 | -1.43 | EUR/USD | 1.0868 | -0.22 | +0.11 |
| 천연가스 | 3.11 | +5.60 | -2.05 | USD/JPY | 129.83 | -0.30 | +0.18 |
| 금 | 1,945.60 | -0.09 | +0.01 | GBP/USD | 1.2399 | -0.07 | +0.02 |
| 은 | 23.62 | -1.33 | -0.98 | USD/CHF | 0.9210 | +0.04 | +0.04 |
| 알루미늄 | 2,627.00 | -0.45 | +0.63 | AUD/USD | 0.7109 | -0.08 | +2.10 |
| 전기동 | 9,263.50 | -0.71 | -0.65 | USD/CAD | 1.3311 | -0.08 | -0.52 |
| 아연 | 3,413.50 | -2.09 | -0.20 | USD/RUB | 69.7642 | +0.27 | +0.93 |
| 옥수수 | 683.00 | +0.15 | +1.07 | USD/BRL | 5.1086 | +0.76 | -1.89 |
| 밀 | 750.00 | -0.47 | +1.01 | USD/CNH | 6.7562 | +0.29 | -0.37 |
| 대두 | 1,509.50 | -0.74 | +0.38 | USD/KRW | 1,231.30 | +0.05 | -0.49 |
| 커피 | 169.90 | +1.65 | +9.75 | USD/KRW NDF1M | 1,228.95 | -0.18 | -0.14 |
| 10년물 금리 | 종가(%) | D-1(bp) | D-5(bp) | 10년물 금리 | 종가(%) | D-1(bp) | D-5(bp) |
| 미국 | 3.505 | +1.06 | +2.66 | 스페인 | 3.226 | +4.10 | +9.10 |
| 한국 | 3.287 | +5.70 | +1.50 | 포르투갈 | 3.138 | +4.20 | +9.30 |
| 일본 | 0.491 | -0.20 | +10.50 | 그리스 | 4.255 | +2.90 | +8.80 |
| 독일 | 2.239 | +2.30 | +6.20 | 이탈리아 | 4.097 | +6.20 | +10.40 |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